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지니는 암묵적 표상

배 재 창[†]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 5·18과 관련하여 민주공동체처럼 긍정적인 내용과 광주시민들의 희생처럼 부정적인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더 빠르게 떠올리는지 암묵적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이 5·18과 연합된 조건에서 더욱 빠르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민주공동체와 관련된 사진들이 5·18과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빨랐다. 아울러 두 지역 대학생들의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를 측정해본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5·18에 대해 외상에 가까운 암묵적 표상을 지니며, 5·18을 참담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잘 모르지만 그 희생이 갖는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주요어 : 5·18민주화운동, 외상, 민주공동체, 암묵적 표상, 암묵적 평가

[†] 교신저자 : 배재창,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 fwulf@naver.com

박정희 사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민주공화국 탄생을 염원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군부독재의 재현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였으나 무자비한 국가폭력 앞에서 곧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김용철, 2015).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화를 외치며 끝까지 저항하였다. 그 결과 신군부는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광주로 공수부대를 급파하여 신속하게 진압하려 하였다(안종철, 2001).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의 유혈진압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분노한 광주시민들은 광주의 중심부였던 전남도청까지 진출하기에 이른다. 전남도청에 고립되었던 공수부대의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시위는 전투로 양상이 바뀌었다. 이후 무장한 광주시민들이 전남도청을 압박하면서 공수부대는 5월 22일 철수하게 되었다. 신군부로부터 해방된 광주는 무정부상태가 되었지만, 광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도덕성에 기반한 민주적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증강된 공수부대가 광주로 재진입하면서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던 시민군들은 사살되었고, 그들의 죽음을 끝으로 운동은 마무리되었다(안종철, 2001; 이재의, 2005). 이후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던 광주시민들은 신군부에 의해 폭도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면서 가해자로 인식되었다(정근식, 2007). 5·18민주화운동(이하 5·18) 기간 동안 광주시민들은 승리와 패배를 함께 경험하였으므로, 그들의 기억에는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공존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정보의 부호화(encoding) 과정이나

비중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들이 재생되는 상황에서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McNally, Hornig, Otto, & Pollack, 1997). 예컨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환희에 찼던 경험 중심으로 부호화가 이루어졌다면, 민주공동체와 관련된 민주화 투사나 민주화 운동 등의 정보들도 함께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머지 투쟁기간에 자행된 탄압과 학살을 중심으로 부호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패배 및 죽음과 관련된 외상(trauma)이나 빨갱이처럼 공산주의와 관련된 정보들이 강하게 연합되었을 수 있다.

5·18에 대한 암묵적 표상의 구성

강한 정서를 동반한 경험들은 암묵적인 경로를 통해 내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나은영, 1998; Fazio, 1990). 아울러 암묵적 기억들은 관련된 자극에 많이 노출될수록 정보 간 접근이 용이해져서 암묵적 태도가 강해질 수 있다(Fazio & Williams, 1986). 그런데 신군부에서는 5·18을 공산세력이 주도한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광주시민의 폭력성을 부각하였고 자신들의 학살을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극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나간채, 2007). 반면에 광주시민들은 민주화 운동으로서 5·18의 가치와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직접 나서서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양야기, 2014; 정근식, 2007).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출된 자극의 성격과 빈도에 의해 5·18에 대한 암묵적 표상(representation)이 구성되었을 텐데, 언론의 통제가 가능한 신군부에 비해 광주시민들은 여론 형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

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던 광주시민들은 심각한 외상을 경험하였지만, 공산주의와 결탁한 반란세력으로 누명을 쓰게 되면서 2차 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배재창, 2016; 오수성, 1990). 일반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되면서 과도한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그러므로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회상을 차단하거나 회상되는 정보를 적응적인 방향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은 가해자로 낙인찍혀서 사회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5·18에 대한 암묵적 표상은 부정적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88년 11월 5·18이 뒤늦게 ‘광주민중화운동’으로 인정받으면서, 광주시민들은 가해자의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외상을 치유하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온적인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5·18은 보수주의자들에게 ‘그들만의 혁명’으로 여겨지면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이숙의, 진두현, 2017; 조진태, 2005).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 사건 후 2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중에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40%를 초과하였다(오수성 등, 2006). 여기서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인원만 해당된다.

하지만 5·18에 동참한 광주시민들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동료의 희생에 함께 아파했을 것이다(배재창, 2016). 따라서 광주시민 중 상당수가 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도 외상이 전이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외상경험을 주변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Elwood, Mott, Lohr, & Galovski, 2011). 실제로 5·18 피해자의 유가족 중 19.5%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오수성 등, 2006), 한국전쟁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도 23.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자녀들이었다(정홍주 등, 2015). 또한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이 상담자에게 전이되는 것처럼 가족이 아니더라도 외상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권용철, 유성은, 2013; 권해수, 김소라, 2006; 민지원, 주혜선, 안현의, 2016;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그러나 5·18로 인한 외상을 살펴본 심리학 연구들에서 대상자들은 피해자와 가족으로 국한되었고(오수성 등, 2006; 오수성, 신현균, 2008), 일반 광주시민이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광주라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인 피해자의 외상은 다른 광주시민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광주시민과 그 자녀세대가 5·18에 대해 어떤 암묵적 표상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18 점화가 광주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출신 대학생들에게 5·18이 아닌 6월 항쟁 사진을 제시하여 민주화 운동을 점화한 결과, 광주에 대한 암묵적 평가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출신지역인 대구에 대해서는 암묵적 편견(prejudice)이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배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광주시민들이 5·18을 민주공동체처럼 긍정적인 정보들과 연합하였다면, 민주화 운동이 환기된 상태에서 광주에 대한 태도가 더욱 고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거부감만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이 점화된 상태에서 대구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배재창 등, 2004). 이러한 차이는 전남참여자가 광주참여자에 비해 5·18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배재창(2016)은 5·18을 경험한 광주시민과 경험하지 못한 전남도민의 자녀들이 5·18에 대해 어떠한 인지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5·18이 환기되었을 때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군인들의 폭력’과 ‘광주시민들의 희생’ 등 외상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단편적으로만 보고하였다. 5·18 당시 신군부는 봉쇄작전을 통해 광주를 인접지역으로부터 고립시켰다(나간채, 2007). 이에 사건의 당사자였던 광주시민은 많은 정보에 노출되었지만, 관찰자였던 전남도민은 정보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5·18이 환기된 이후 광주에 대한 암묵적 평가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광주 참여자들은 광주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남참여자들은 광주를 미약하지만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배재창, 2016).

이 결과들을 보면, 각 지역의 대학생이 떠올린 내용과 광주에 대한 암묵적 평가의 변화가 상당히 부합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5·18이 환기되면 평소 5·18과 연합되었던 다양한 정보들이 활성화되지만 대부분 암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Bargh, 1989). 따라

서 모든 정보들을 의식하거나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암묵적 평가는 암묵적으로 활성화된 정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보고한 내용과 암묵적 평가 방향이 일치했다는 결과를 통해 5·18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활성화된 의식적 정보 및 암묵적 정보의 속성이 유사했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다. 5·18이 환기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부정적 정보들이 활성화된다면,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추론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5·18이 환기되는 상태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암묵적으로 활성화되었는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광주시민들의 5·18에 대한 암묵적 표상이 외상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암묵적 차원에서 5·18은 외상과 관련된 정보들과 강하게 연합되고,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5·18을 점화한 후 광주에 대한 암묵적 태도변화를 관찰한 연구들에서 광주의 대학생들은 광주에 대한 태도가 전혀 고양되지 않았다. 그러나 5·18 가해자의 출신지역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거나(배재창 등, 2004), 광주에 대한 선호가 급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배재창, 2016).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5·18의 점화는 광주의 대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출신지역을 부정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5·18의 점화가 외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활성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로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부모세대로부터 5·18에 대한 암묵적 정보와 태도를 물려받았을 것이다(나은영, 권준모, 2002). 따라서 5·18의 점화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사건을 경험한 세대에
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배재창, 2016; 배재창 등, 2004)이
5·18의 점화로 야기된 광주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 변화를 확인했다면, 본 연구의 목적은
5·18 점화 시 암묵적으로 활성화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점화효과가 부정적으로 나
타난 원인을 탐구하기 위함이다.

암묵적 표상의 측정

배재창(2016)은 표적대상¹⁾인 광주와 특성자
극²⁾인 긍정·부정 단어를 연합하여, 각 조건
의 반응시간 차이로 광주에 대한 암묵적 평가
를 측정할 수 있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이하 IAT)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표적대
상을 광주 대신 5·18로 바꾸면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를 측정할 수 있다. 아울러 표적
대상을 5·18로, 특성자극인 긍정·부정 단어
를 5·18과 관련된 자극들로 대체하면, 5·18
과 어떤 자극이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앞서 5·18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
광주참여자의 경우 외상과 관련된 반면 전남
참여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었으므로, 특
성자극으로 외상자극(폭력과 죽음 관련)과 민
주자극(민주공동체 관련)을 사용하면 5·18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인지적

표상 내용과 암묵적 표상이 일치할 경우 광주
참여자는 5·18과 외상자극이 연합된 조건에
서 반응시간이 더 빠를 테지만, 전남참여자는
5·18과 민주자극이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시
간이 더 빠를 것이다.

IAT를 사용하여 암묵적 표상을 확인한 연구
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암묵적 고정관념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이뤄졌다
(Kiefer & Sekaquaprewa, 2007; Lane, Goh, &
Driver-Linn, 2012; Nosek et al, 2007). 암묵적 고
정관념은 사회적 집단에 관한 신념을 과거 경
험의 흔적에 따라 구성원에게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Greenwald & Banaji,
1995). 고정관념의 경우 집단에 대한 공유된
정보(신념)가 필요한데, 5·18의 암묵적 표상
에서는 대상이 집단은 아니지만 대상과 정보
들이 연합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암묵적 고정관념 연구들을 통
해 대상과 정보들의 연합강도를 어떻게 측정
할 수 있을지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Kiefer와 Sekaquaprewa(2007)는 여성들이 수학
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암묵적 차원에서 측
정하고자, 표적대상인 ‘남성(자극: He 등)’과
‘여성(자극: She 등)’을 특성자극인 ‘수학(자극:
Sum 등)’ 및 ‘인문학(자극: Art 등)’과 연합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남녀 모두 남성과 수학,
여성과 인문학이 연합된 조건에서 더욱 빠르
게 반응하였다. 아울러 Lane 등(2012)은 남성이
과학을 잘한다는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
해, 위 연구에서 특성자극인 ‘수학’만 ‘과학
(Chemistry 등)’으로 바뀌어서 측정한 결과, 여성
참여자들도 여성보다는 남성을 과학과 더 쉽
게 연합시켰다. 명시적 고정관념에서도 여성
이 과학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두
개념 간 유의수준에 가까운 정적상관이 나타

- 1) 표적대상: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이며, 일반적으로 대상과 관련된 상징어들이 자
극으로 사용된다(예: 표적대상-광주, 상징어-무등
산, 광주천, 충장로).
- 2) 특성자극: 대상과 연합되는 특성범주를 구성하는
 자극으로, 상반된 특성을 대응시킨 구조에서 명사
 나 형용사가 주로 사용된다. 정서적 평가가 목적
 일 경우 대개 ‘긍정vs부정’ 대응구조를 사용한다.

났다. 이 연구들은 모두 문자로 된 특성자극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암묵적 표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서 특성자극을 문자로 제시할 경우 긍정·부정 구조의 평가적 특성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적 특성과 구별되는 검사를 제작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자극이 필요하였다.

흑인은 폭력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표적대상인 ‘흑인’과 ‘백인’의 사진을 특성자극인 ‘무기’ 및 ‘안전한 물건’ 사진과 연합시켜서 제시한 결과, 참여자 중 72%가 흑인과 무기, 백인과 안전한 물건의 연합된 조건에서 더욱 빠르게 반응하였다. 아울러 백인을 미국인의 전형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표적대상으로 유럽계 미국인(White American)과 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을 대응시키고, 특성자극으로 미국지명(Ohio 등)과 외국지명(Warsaw 등) 혹은 미국과 외국의 랜드마크 사진을 연합시킨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유럽계와 미국, 원주민이나 아시아계를 외국과 더 쉽게 연합시켰다(Nosek et al, 2007).

이 연구들에서는 사진을 표적자극으로 사용하면서, 특성자극으로 사진 혹은 문자를 연합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5·18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사건 당시의 사진자극에 충분히 노출된 상태이므로 특성자극으로 사진자극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고정관념의 경우 흑인 등 집단범주와 정보에 해당하는 특성이 구분되기 때문에 모든 자극을 사진으로 제시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5·18은 집단범주가 아닌 역사적 사건이기에 5·18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표적자극으로 사용할 경우 특성자극과 중첩되면서 참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적대상인 5·18을 문자

자극으로, 외상과 민주화로 구분되는 특성자극을 5·18 사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 개요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민들이 실제로 5·18과 관련하여 외상적 경험을 공유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광주 및 전남출신 대학생들이 5·18에 대해 어떠한 암묵적 표상을 지니고 있으며,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암묵적 표상을 확인하려면 부정적 정보(외상자극)와 긍정적 정보(민주자극) 중 어떤 정보가 5·18과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IAT의 표적자극으로 사용될 5·18상징어의 정서가를 점검하였고, 특성자극으로 사용할 외상자극 사진과 민주자극 사진을 선정하였다. 이 자극들을 사용하여 5·18이 표적대상인 표상-IAT(특성자극: 사진)와 평가-IAT(특성자극: 문자)를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서 참여자 중 절반은 표상-IAT 수행 후 평가-IAT를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역순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1: 광주출신 대학생은 ‘5·18+외상’ 조건에서 ‘5·18+민주’조건보다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가설 1-2: 전남출신 대학생은 ‘5·18+민주’ 조건에서 ‘5·18+외상’조건보다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가설 1-3: ‘5·18+외상’조건 및 ‘5·18+민주’조건의 반응 양상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광주출신 대학생은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가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 2-2: 전남출신 대학생은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가 긍정적일 것이다.

사전조사

IAT 제작에 필요한 표적자극과 특성자극들을 엄선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표적자극으로 사용할 5·18 상징어의 경우 친숙도는 높고 정서가와 폭력성은 되도록 중립적일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표상-IAT에서 특성자극으로 사용할 사진자극들은 누구나 5·18과 관련된 사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했고, 사진자극 중 외상자극 사진은 부정성과 폭력성이 모두 높아야 하지만 민주자극 사진은 우선 긍정성이 높으면서 가급적 비폭력적인 사진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5·18 상징어 조사

표적대상이 5·18이므로 표적자극으로 5·18을 상징하는 ‘5·18’, ‘5월 18일’, 및 ‘광주항쟁’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5·18 상징어만 평가할 경우 5·18에 대한 평가로 일률적이거나 편향된 응답이 나올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

에서는 유사한 자극으로 ‘4·19’, ‘무등산’, 그리고 ‘충장로’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광주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0명(출신지역: 광주 19명, 전남 7명, 기타 4명)을 대상으로 각 상징어의 친숙도(1점: 매우 낯설음 ~ 6점: 매우 친숙함), 긍정성(1점: 매우 부정적 ~ 6점: 매우 긍정적), 및 폭력성(1점: 매우 평화적 ~ 6점: 매우 폭력적)을 조사하였다. 출신지역별 평가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5·18 상징어의 친숙도 평균은 4.93($SD = 1.04$)으로 5점인 ‘친숙함’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긍정성 평균은 3.92($SD = 1.40$)로 중간값인 3.5에 근접하는 ‘조금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왔다. 그런데 광주참여자의 평균이 3.74($SD = 1.35$)로 중립에 가까운 반면, 전남참여자들은 평균이 4.71($SD = 0.76$)로 5·18 상징어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폭력성 평가에서 평균은 4.30($SD = 1.41$)으로 ‘조금 폭력적’인 수준에 가까웠다. 하지만 전남참여자들은 평균이 3.52($SD = 1.64$)로 중립에 가까웠고 다른 지역에 비해 폭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긍정성과 폭력성 평가에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광주와 전남 모두 ‘긍정적’ 및 ‘폭력적’ 수

표 1. 5·18 상징어에 대한 출신지역별 평가결과

구 분		친숙도 평균	긍정성 평균	폭력성 평균
광 주	19명	4.74 (0.90)	3.74 (1.35)	4.42 (1.25)
전 남	7명	4.95 (0.90)	4.71 (0.76)	3.52 (1.64)
기 타	4명	5.83 (0.33)	3.42 (2.14)	5.08 (1.44)
전 체	30명	4.93 (1.04)	3.92 (1.40)	4.30 (1.4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5·18, 5월 18일, 및 광주항쟁에 대한 평가를 종합

준(5점)을 초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체평균 값을 기준으로 친숙도가 높고 긍정성과 폭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자극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5·18 사진자극 조사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IAT에는 5·18 상징어와 IAT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긍정·부정 특성자극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5·18의 암묵적 표상이 외상적 정보와 민주적 정보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 확인하기 위한 표상-IAT에는 5·18 사진 중에서 민주화 관련 사진(이하 민주사진)과 외상 관련 사진(이하 외상사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런데 5·18 사진이지만 식별이 어렵거나 다른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혼동할 경우 특성자극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5·18 이외에 '4·19', '부마항쟁', 및 '6월 항쟁' 사진을 추가하여 변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특성자극으로 사용할 후보군으로 5·18기념재단(www.518mf.org)의 사진자료 중 민주화 운동, 시민군, 시민공동체 등과 같이 광주시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진 15장을 부록 1과 같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공수부대에 의한 연행과 폭행 및 장례식처럼 광주시민의 외상 및 죽음과 관련된 사진 15장을 부록 2와 같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4·19 사진 5장³⁾, 6월 항쟁 사진 5장⁴⁾, 및 부마항쟁 사진 2장⁵⁾을 추가하여 그림 1과 같

이 총 42장의 사진을 조사하였다.

광주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7명(출신지역: 광주 23명, 전남 10명, 기타 4명)을 대상으로 각 사진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1번: 4·19, 2번: 부마항쟁, 3번: 5·18, 4번: 6월 항쟁)을 선택한 후, 그 사진이 얼마나 폭력적이며(1점: 비폭력적 ~ 3점: 조금 폭력적 ~ 5점: 폭력적 ~ 7점: 매우 폭력적), 얼마나 긍정적인지(1점: 매우 부정적 ~ 7점: 매우 긍정적)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양식은 그림 2와 같이 5·18 사진들 사이에 다른 민주화운동 사진들을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앞서 상징어 조사에서는 폭력성을 양극차원(평화vs폭력)으로 평가했지만, 사진자극 평가에서는 폭력성 수준을 더욱 세밀하게 비교하기 위해 단일차원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진별 변별과제의 정답비율을 살펴본 결과, 표 2에 정리된 것처럼 민주사진의 정답률이 외상사진의 정답률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실험의 대상지역인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만 살펴보았을 때 외상사진의 정답률은 78%로 높았던 반면, 민주사진 정답률은 55%로 낮게 나왔다. 아울러 외상사진의 경우 지역 간 정답률 차이가 적었지만, 민주사진에서는 광주출신 대학생들이 63%를 맞춘 반면,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37.3%를 맞춰 36.7%를 맞춘 기타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정답률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들이 5·18과 관련하여 민주공동체 관련 사진들보다는 외상과 관련된 사진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5·18 사진 중 긍정적인 내용의 사진들에 대해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잘 알지만 다른 지역 대학생들

3) 출처: 4·19혁명기념도서관, <http://library.419revolution.org/>

4)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archives.kdemo.or.kr/main>

5)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2815227&cid=55772&categoryId=55820

구 분	5·18 민주사진	5·18 외상사진	4·19 등
사 례			
수 량	15장	15장	12장

그림 1. 사전조사에서 사용된 사진자극과 구성 비율

사진자극의 정서가 평가	
사진들을 차례대로 확인하시고, 각 사진과 관련된 사진(1번)이 무엇이며, 그 사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2번), 긍정적인지(3번) 아래 척도를 확인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얼마나 폭력적인가요? 1-----2-----3-----4-----5-----6-----7 비폭력적 조금 폭력적 폭력적 매우 폭력적 3번) 얼마나 긍정적인가요? 1-----2-----3-----4-----5-----6-----7 매우 부정적 부정적 조금 부정적 중립 조금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1) 사진과 관련된 사건은? ① 4.19 ② 부마항쟁 ③ 5.18 ④ 6월 항쟁 2) 비폭력 1--2--3--4--5--6--7 매우 폭력 3) 매우 1--2--3--4--5--6--7 매우 부정 중립 긍정
2	 1) 사진과 관련된 사건은? ① 4.19 ② 부마항쟁 ③ 5.18 ④ 6월 항쟁 2) 비폭력 1--2--3--4--5--6--7 매우 폭력 3) 매우 1--2--3--4--5--6--7 매우 부정 중립 긍정
3	 1) 사진과 관련된 사건은? ① 4.19 ② 부마항쟁 ③ 5.18 ④ 6월 항쟁 2) 비폭력 1--2--3--4--5--6--7 매우 폭력 3) 매우 1--2--3--4--5--6--7 매우 부정 중립 긍정
4	 1) 사진과 관련된 사건은? ① 4.19 ② 부마항쟁 ③ 5.18 ④ 6월 항쟁 2) 비폭력 1--2--3--4--5--6--7 매우 폭력 3) 매우 1--2--3--4--5--6--7 매우 부정 중립 긍정

(1·2·4번 5·18 사진, 3번 6월 항쟁 사진)

그림 2. 5·18 사진자극 평가를 위한 조사양식

표 2. 5·18 사진자극에 대한 변별과제 정답률

사 진	광주지역 정답률		전남지역 정답률		기타지역 정답률		광주+전남 정답률		순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민주 1	20	87.0	2	20	2	50	22	66.7	4
민주 2	16	69.6	3	30	1	25	19	57.6	9
민주 3	18	78.3	6	60	3	75	24	72.7	1
민주 4	15	65.2	6	60	1	25	21	63.6	4
민주 5	16	69.6	3	30	1	25	19	57.6	9
민주 6	17	73.9	2	20	2	50	19	57.6	9
민주 7	13	56.5	2	20	0	0	15	45.5	12
민주 8	15	65.2	4	40	2	50	19	57.6	8
민주 9	13	56.5	1	10	1	25	14	42.4	13
민주10	3	13.0	2	20	1	25	5	15.2	15
민주11	15	65.2	6	60	3	75	21	63.6	4
민주12	16	69.6	6	60	2	50	22	66.7	3
민주13	7	30.4	3	30	1	25	10	30.3	14
민주14	16	69.6	7	70	2	50	23	69.7	2
민주15	18	78.3	3	30	0	0	21	63.6	7
민주평균	14.53	63.19	3.73	37.33	1.47	36.67	18.27	55.36	
외상 1	18	78.3	8	80	3	75	26	78.8	9
외상 2	19	82.6	9	90	4	100	28	84.8	4
외상 3	20	87.0	8	80	4	100	28	84.8	4
외상 4	21	91.3	7	70	4	100	28	84.8	4
외상 5	19	82.6	6	60	2	50	25	75.8	12
외상 6	21	91.3	6	60	2	50	27	81.8	7
외상 7	18	78.3	8	80	2	50	26	78.8	9
외상 8	19	82.6	8	80	3	75	27	81.8	7
외상 9	22	95.7	7	70	3	75	29	87.9	2
외상10	15	65.2	6	60	1	25	21	63.6	14
외상11	21	91.3	8	80	4	100	29	87.9	2
외상12	19	82.6	7	70	2	50	26	78.8	9
외상13	21	91.3	9	90	4	100	30	90.9	1
외상14	11	47.8	3	30	1	25	14	42.4	15
외상15	18	78.3	5	50	2	50	23	69.7	13
외상평균	18.80	81.75	7.00	70.00	2.73	68.33	25.80	78.17	

주. 총인원은 광주 23명, 전남 10명, 기타 4명. 순위는 민주사진과 외상사진을 구분한 결과이며, 후보군에서 제외된 사진은 사선으로 표시.

표 3. 5·18 사진자극의 긍정성 및 폭력성 평균($n = 37$)

민주사진				외상사진			
사 진	긍정성	폭력성	선택	사 진	긍정성	폭력성	선택
민주 6	5.49(1.37)	1.62(1.04)	O	외상14	2.81(1.27)	4.32(1.73)	정답↓
민주 8	5.46(1.19)	2.30(1.31)	O	외상 6	2.78(1.49)	3.22(2.15)	긍정↑폭력↓
민주 1	5.38(1.23)	1.51(0.73)	O	외상10	1.92(0.68)	5.92(1.09)	정답↓
민주 5	5.11(1.51)	2.14(1.36)	O	외상 1	1.89(0.95)	6.24(0.80)	O
민주 7	5.03(1.24)	2.22(1.13)	O	외상 5	1.84(0.90)	5.95(1.05)	긍정↑정답↓
민주 9	4.97(1.32)	2.31(1.49)	O	외상 8	1.81(1.35)	4.57(2.26)	긍정↑폭력↓
민주15	4.89(1.61)	2.54(1.48)	O	외상 2	1.73(0.93)	6.19(0.88)	O
민주 2	4.67(1.53)	2.36(1.40)	O	외상15	1.65(0.82)	4.27(2.16)	O
민주13	4.65(1.30)	3.43(1.57)	정답↓	외상12	1.65(0.75)	6.24(1.04)	O
민주 4	4.25(1.50)	4.89(1.15)	O	외상 7	1.49(0.80)	6.54(0.80)	O
민주10	4.11(1.22)	3.35(1.57)	정답↓	외상11	1.35(1.01)	6.86(0.35)	O
민주12	4.05(1.25)	4.65(1.30)	O	외상13	1.32(0.58)	6.68(0.58)	O
민주11	3.92(1.42)	4.84(1.34)	긍정↓	외상 3	1.27(0.84)	6.84(0.44)	O
민주 3	3.03(1.58)	5.00(1.56)	긍정↓	외상 9	1.24(0.43)	6.89(0.31)	O
민주14	2.97(1.74)	5.14(1.50)	긍정↓	외상 4	1.14(0.42)	6.89(0.39)	O

주. 7점 척도(괄호 안은 표준편차). 긍정성이 높은 순서이며 선택된 자극은 O표시, 제외된 자극은 사유명시.

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민주 10번과 민주 13번 및 외상 10번과 외상 14번은 후보군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긍정성 평가결과 및 폭력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각 평가결과는 부록 3과 부록 4를 참고). 따라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표 3과 같이 전체 평균값을 사용하여 사진자극을 선별하였다. 두 가지 평가특성 중 긍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데, 이유는 시민군이나 시위장면과 같은 민주사진의 경우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민주사진에서는 긍정성이 가장 낮은 사진들인 민주 3번, 민주 11번, 및 민주 14번을 추가로 제외하여 표상-IAT에 사용할 민주사진 10장을 확정하였다. 선정된 민주사진들의 긍정성 평균은 4.93 ($SD = 1.44$), 폭력성 평균은 2.65($SD = 1.66$)이었다.

한편 외상사진에서는 낮은 정답률과 높은 긍정성 및 낮은 폭력성 조건 중에서 교집합이 있는 외상 5번, 외상 6번, 및 외상 8번을 추가로 제거한 후 외상사진 10장을 확정하였다. 선정된 외상사진들의 긍정성 평균은 1.47($SD = 0.80$)이었고, 폭력성 평균은 6.36($SD = 1.19$)이었다.

본실험

실험 참여자

광주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97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44명(45.4%), 여자 53명(54.6%)이었다. 참여자는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가산점을 받았고, PC실에서 2인용 책상에 한 명씩 약 1.5m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실험 설계

지역조건(집단 간: 광주, 전남)과 검사유형(집단 내: 평가-IAT, 표상-IAT)을 포함하는 2X2 혼합 요인 설계로 구성하였다. 참여자의 출신지역은 주성장지⁶⁾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광주와 전남 출신이 아닌 1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에 정리된 것과 같이 참여자 중 광주출신은 46명(남자 20명, 여자 26명), 전남출신은 40명(남자 18명, 여자 22명)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순서가 홀수 번째인 참여자집단(광주 24명, 전남 21명)은 평가-IAT를 먼저 수행하였고, 짝수 번째인 참여자집단(광주 22

명, 전남 19명)은 표상-IAT를 먼저 수행하였다.

자극 분류표

사전조사 결과, 민주사진의 정답률이 낮았는데 표상-IAT 수행 중 처음 보는 사진이 나오면 식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난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검사에 사용된 사진자극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사진 10장과 외상사진 10장이 나와 있는 사진자극 분류표를 제작하였다(Blair, Ma, & Lenton, 2001; Greenwald & Farnham, 2000). 아울러 평가-IAT에 사용된 긍정단어 10개와 부정단어 10개가 제시된 문자자극 분류표도 제작하였다. 각 IAT 검사 수행 전 배부하여 3분 동안 자극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

표상-IAT

5·18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확인하기 위해, 5·18 상징어인 ‘5·18’, ‘5월 18일’, 및 ‘광주항쟁’이 표적자극이며, 민주사진 10장과 외상사진 10장을 특성자극으로 하는 IAT를 ‘Inquisit-3’ 프

표 4. 출신지역 X 성별에 따른 표본 분포

(단위 : 명)

구 분	출신지역		전 체
	광 주	전 남	
성 별	남 자	20(16)	38(31)
	여 자	26(23)	48(42)
	합 계	46(39)	86(73)

주. 괄호 안은 오반응 비율이 10%를 초과한 13명을 제외한 후 분석에 포함된 인원 수

6) 초·중·고 교육을 받은 지역으로 선택하였고, 출생지와 성장지가 다르거나 성장지가 여럿인 경우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스스로 정체감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였다.

블록①	블록②	블록③	블록④	블록⑤
특성변별	조합과제 연습	조합과제 실전	역조합과제 연습	역조합과제 실전
외상* *민주	외상* *민주 *5·18	외상* *민주 *5·18	5·18* 외상* *민주	5·18* 외상* *민주
40시행	24시행	51시행	24시행	51시행

(전체 5블록 190시행으로 구성. * 표시는 반응 방향)

그림 3. 5·18을 단일표적으로 하는 표상-IAT의 절차



(왼쪽은 블록③ 5·18+민주조건, 오른쪽은 블록⑤ 5·18+외상조건에서 표적자극)

그림 4. 5·18이 표적대상인 표상-IAT의 실행화면

로그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사진자극의 해상도7)는 600:400px로 통일시켰는데 세로로 긴 사진의 경우 400:600px로 맞추었다.

5·18이 단일표적이므로 5·18과 연합되지 않은 특성자극의 반응비율을 높여서 반응방향의 좌우불균형8)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실전과제에서 회기당 반응비율을 '5·18 +

민주조건'은 5(5·18):5(민주):7(외상), '5·18 + 외상조건'은 7(민주):5(외상):5(5·18)로 균형을 맞추어 각 3회기 51시행으로 구성하였다 (Karpinski & Steinman, 2006). 검사의 구성과 절차는 그림 3과 같았다. 참여자들은 민주사진과 외상사진을 40회 변별하고(블록①), 민주사진과 외상사진에 5·18 상징어가 한쪽에만 추가된 연습시행을 24회 변별한 다음(블록②), 동일한 조건의 실전과제 51시행을 수행하였다(블록③). 첫 번째 실전과제가 끝나면 참여자들은 5·18 상징어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 연습시행을 24회 변별하였고(블록④), 마지막으로 동일한 조건의 두 번째 실전과제 51시행을 수행하였다(블록⑤).

모든 블록에서 자극의 제시방법은 순서가 무작위지만 모든 자극이 한 번씩 골고루 제시

7) 실험용 PC 운영체제는 Microsoft Windows 7이었고, 17inch 모니터에서 화면 해상도는 1024:768px로 설정하였다.

8) 전통적인 IAT와 같이 자극별 반응횟수가 동일할 경우 단일표적 IAT에서는 반응방향(좌:우)에서 10(부정+표적):5(긍정)나 5(부정):10(긍정+표적)으로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표적과 연합되지 않은 특성자극의 반응비율을 7로 올리면 10:7 혹은 7:10으로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되도록 설정하였다(명령어 ‘noreplace’). 순서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홀수 참여자에게는 ‘5 · 18 + 민주조건’이 먼저 제시되고 짝수 참여자에게는 ‘5 · 18 + 외상조건’이 먼저 제시되도록 제작하였다(그림 4 참고). 검사는 민주사진 및 민주사진과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왼쪽(Z키), 외상사진 및 외상사진과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오른쪽(X키)으로 변별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IAT

5 · 18에 대한 암묵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표적자극은 표상-IAT와 동일한 5 · 18 상징어를 사용하였고, 평가를 위한 긍정·부정 특성자극으로 배재창과 한규석(2015)이 선정한 단어 20개를 사용하였다. 선정과정에서 1점이 ‘매우 부정적’, 7점이 ‘매우

긍정적’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긍정단어로 ‘행복’, ‘사랑’, ‘평화’, ‘기쁨’, ‘건강’, ‘감사’, ‘희망’, ‘신뢰’, ‘생명’, ‘미소’ 등 10개가 선정되었고(긍정성 평균 = 6.38, *SD* = 0.67), 부정단어로는 ‘폭력’, ‘전쟁’, ‘질병’, ‘불행’, ‘불신’, ‘배신’, ‘절망’, ‘구토’, ‘미움’, ‘고통’ 등 10개가 선정되었다(긍정성 평균 = 1.91, *SD* = 0.85). 여기서 나머지 자극별 반응비율과 제시방법, 검사의 구성과 절차는 표상-IAT와 일치하였다. 단, 첫 번째 특성변별 과제를 그림 5와 같이 20시행으로 줄여서 제작하였다. 아울러 그림 6에 제시된 것처럼 검사는 부정단어 및 부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왼쪽(Z키), 긍정단어 및 긍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오른쪽(X키)으로 변별하도록 구성하였다.

블록①	블록②	블록③	블록④	블록⑤
특성변별	조합과제 연습	조합과제 실전	역조합과제 연습	역조합과제 실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5 · 18	긍정* *부정 *5 · 18	5 · 18* 긍정* *부정	5 · 18* 긍정* *부정
20시행	24시행	51시행	24시행	51시행

(전체 5블록 170시행으로 구성. * 표시는 반응 방향)

그림 5. 5 · 18을 단일표적으로 하는 평가-IAT의 절차



(왼쪽은 블록③ 5 · 18+부정조건, 오른쪽은 블록⑤ 5 · 18+긍정조건에서 오반응 표시)

그림 6. 5 · 18이 표적대상인 평가-IAT의 실행화면

실험 절차

소집단(2~8명)으로 편성된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다른 참여자들과 좌우 1.5m, 전후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좌석을 지정하였다. 참여자에게 사진 및 단어자극의 분류시간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총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한 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도록 통제하였다. 참여자번호 작성방법⁹⁾을 설명한 후 홀수 번째 참여자집단에게는 긍정·부정 단어들이 나와 있는 분류표를 배부하였고 3분 동안 단어들을 숙지하도록 통제한 후 평가-IAT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사가 끝나면 2분 휴식 후 민주·외상 사진들이 나온 분류표를 배부한 다음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3분 후에 표상-IAT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그림 7 참고). 하지만 짝수 번째 참여자집단의 경우 표상-IAT를 먼저 수행한 다음 평가-IAT를 수행하도록 통제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이 두 번째 검사를 완료하면 연구의 목적과 IAT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자료 변환 및 분석 방법

오반응이 전체 반응의 10%를 초과한 13명

(남자 7명, 여자 6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광주출신 39명(남자 16명, 여자 23명)과 전남출신 34명(남자 15명, 여자 19명)의 검사결과를 분석했다. 먼저 표상-IAT 자료에서 오반응은 실전과제 102시행의 정반응 평균시간에 600ms를 더한 후 재입력하였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다음으로 전체 102개 반응 중에서 표적인 5·18 상징어와 연합되지 않은 42개 반응을 제거한 후, 5·18+민주조건에서 30개 반응과 5·18+외상조건에서 30개 반응을 분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각 조건별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5·18+민주 D값(이하 민주 D값)'과 '5·18+외상 D값(이하 외상 D값)'으로 변환하였다. 민주 D값과 외상 D값은 수치가 클수록 반응시간이 느린 것이다. 한편 평가-IAT 자료의 경우 '5·18+부정 D값' 및 '5·18+긍정 D값' 계산까지는 표상-IAT와 과정이 동일하지만, 그 차이값으로 5·18에 대한 태도 D값(부정 D값-긍정 D값, 이하 5·18평가 D값)을 산출하였다(Greenwald et al., 2003). 5·18평가 D값은 수치가 클수록 5·18을 선호하는 것이다.

자료 변환 후 출신지역별로 민주 D값과 외상 D값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가설 1-1, 1-2 검증). 아울



그림 7.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실험의 절차

9) 참여자번호는 총 6자리 숫자조합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자리는 성별(남자 1, 여자 2), 둘째 자리는 출신지역(광주 1, 전남 2, 전북 3, 서울경기 4, 경상 5, 충청 6, 강원 7, 제주 8), 셋째와 넷째 자리는 연령(예: 21), 마지막 두 자리는 참여한 순서에 맞춰 번호를 지정해 주었다. 예컨대 3번째로 참여한 전남출신 22살 남자의 참여자번호는 122203이었다.

러 민주조건 및 외상조건인 반응양상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신 지역(집단 간: 광주vs전남)과 사진유형(집단 내: 민주vs외상)의 상호작용효과를 이원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살펴보았다(가설 1-3 검증).

결 과

표상-IAT 측정 결과

민주사진 및 외상사진이 5·18과 연합되어 있는 강도를 살펴볼 수 있는 표상-IAT의 측정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민주 D 값과 외상 D 값이 작을수록 반응시간이 빠르고, 5·18과의 연합강도는 높은 것이다.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이 외상사진과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시간 평균이 621ms($SD = 59$)로 민주사진과 연합된 조건의 반응시간 평균인 680ms($SD = 90$)보다 59ms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각 반응시간을 외상 D 값(2.97, $SD = 1.11$)과 민주 D 값(3.19, $SD = 1.15$)으로 표준화한 후 대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해본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38) = 4.190$, $p < .001$. 이를 통해 ‘광주출신 대학생은 5·18이 외상사진과 연합된 조건에서 더 빠르게 반응할 것’

이라는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자극이 연합된 조건에서 빠른 반응은 자극 사이의 강한 연합을 의미하므로, 광주출신 대학생들의 암묵적 차원에서 5·18이 민주사진보다는 외상사진과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이 외상사진과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시간 평균이 678ms($SD = 115$)로 민주사진과 연합된 조건의 반응시간 평균인 655ms($SD = 100$)보다 23ms 더 느리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각 반응시간을 외상 D 값(3.42, $SD = 1.63$)과 민주 D 값(3.33, $SD = 1.62$)으로 표준화한 후 비교해본 결과, 차이가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t(33) = -1.939$, $p = .061$. 이에 ‘전남출신 대학생은 5·18이 민주사진과 연합된 조건에서 더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사전 조사에서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외상사진에 비해 민주사진을 잘 모르고 있었다. IAT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자극을 접하게 되면 반응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친숙도의 문제로 민주사진에 대한 반응이 다소 지연되었을 수 있다.

5·18+외상조건 및 5·18+민주조건에서의 반응양상이 출신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표 6과 같이 이원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출신지역(광주vs전남)과 사진유

표 5. 출신지역별 민주 D값과 외상 D값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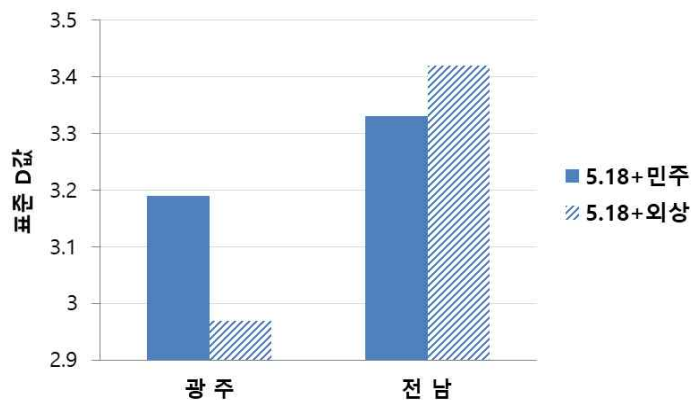
구 분	표상-IAT 결과			차이검증	
		외상 D값	민주 D값	외상-민주	t p
광 주	39명	2.97(1.11)	3.19(1.15)	-0.22	4.190 .000
전 남	34명	3.42(1.63)	3.33(1.62)	0.09	-1.939 .06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각 D값은 클수록 반응 느림. 지역 간 외상-민주 D값의 차이는 유의미, $t(71) = -4.345$, $p < .001$

표 6. 반응시간 D값에 대한 출신지역과 사진유형의 이원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F	η^2	p
<u>집단 간</u>				
출신지역(A)	1	.839	.012	.363
집단 내 오차(S/A)	71	(3.772)		
<u>집단 내</u>				
사진유형(B)	1	2.983	.040	.088
B X A	1	18.883***	.210	.000
집단 내 오차(BXS/A)	71	(.05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평균제곱오차(MSE)를 나타냄. *** $p < .001$



(D값이 작을수록 빠른 반응. 민주 D값 및 외상 D값에 대한 지역 간 차이 없음)

그림 8. 출신지역에 따른 민주 D값과 외상 D값의 차이

형(민주vs외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71) = 18.883$, $p < .001$. 지역별 민주 D값과 외상 D값을 도식화한 그림 8을 보면,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민주조건에 비해 5·18+외상조건에서 반응이 현저하게 빨랐다. 반면에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외상조건에서 근소하지만 더 느리게 반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조건의 반응 양상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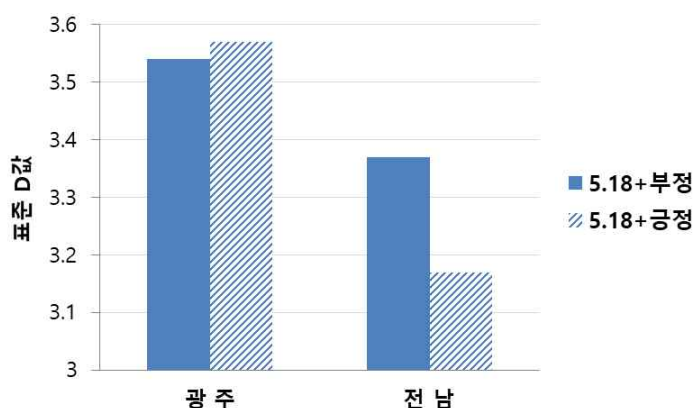
평가-IAT 측정 결과

5·18에 대한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의 차이로 표 7과 같이 암묵적 평가 결과를 산출하였다.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이 부정단어와 연합된 조건에서 평균 614ms($SD = 89$)로 반응하였고, 긍정단어와 연합된 조건에서는 평균 621ms($SD = 89$)로 반응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각 반응시간을 D값으로 표준화하여 5·18평가 D값을 산출한 결과 -.027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광주출신 대학생들이

표 7. 출신지역별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 결과

구 분	평가-IAT 결과			차이검증	
		부정 D값	긍정 D값	5·18평가 D값 (부정-긍정)	t p
광 주	39명	3.54(1.24)	3.57(1.20)	-0.027	0.460 .648
전 남	34명	3.37(0.84)	3.17(0.78)	0.200	-2.679 .01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5·18평가 D값은 클수록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



(D값이 클수록 느린 반응. 부정 D값 및 긍정 D값에 대한 지역 간 차이 없음)

그림 9. 출신지역에 따른 부정 D값과 긍정 D값의 차이

5·18에 대해 중립에 가깝지만 미약하나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하므로(Nock et al., 2010), ‘광주출신 대학생은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반면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이 부정 단어와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시간 평균이 643ms($SD = 94$)로 긍정단어와 연합된 조건의 반응시간 평균인 605ms($SD = 90$)보다 38ms 더 느리게 반응하였다. 각 반응시간을 부정 D값(3.37, $SD = 0.84$)과 긍정 D값(3.17, $SD = 0.78$)으로 표준화한 후 감산한 결과, 5·18평가 D값은 0.2였다. 이는 전남출신 대학생들이 5·18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남출신 대학생은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2-2도 지지되었다.

그림 9를 보면 광주출신 대학생들의 경우 5·18+긍정조건에서 근소한 수준이지만 더 느리게 반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같은 5·18+긍정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였고, 5·18+부정조건과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t(33) = -2.697$, $p < .05$. 이와 같이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광주출신 대학생들에게서는 그러한 경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5.18평가 D값(부정-긍정)을 출신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71) = -2.419, p < .05$.

논 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들은 강한 정서가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내용들이 환기될 때에는 해당 정서와 일치되는 기억표상을 점화시키게 된다(Bargh, 1989). 따라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연상되는지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는 결정될 수 있다. 5·18 당시 광주시민들은 민주화운동의 주체로서 짧은 기간 동안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결국에는 신군부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광주시민들이 경험했던 승리(민주화 경험)와 패배(외상 경험) 중 패배했던 내용 중심으로 기억이 떠오른다면 5·18 및 광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외상 관련 내용이 주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5·18과 외상적 경험이 강하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5·18이 환기된 상태에서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외상 관련 내용을 떠올렸다고 보고했으며, 광주에 대한 암묵적 선호 역시 급감하였다(배재창,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출신 대학생들에게서 실제로 5·18과 외상적 내용이 강하게 연합되어 있으며, 5·18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암묵적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5·18을 표적대상으로 하여 민주사진 혹은 외상사진을 연합하여 제시한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외상사진이 연합된 조건에서 더욱 빠르게 반응하였다. 이는 5·18이 환기된 상태에서 관련 정보 중 외상적 정보가 더 강하

게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는 있었지만 활성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으므로, 5·18에 대한 암묵적 표상은 외상적 정보로 편향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오수성 등, 2006), 암묵적인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작용이므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 연합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외상적 정보를 대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를 많이 노출시킨 후 5·18과 지속적으로 연합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암묵적 차원에서 5·18과 민주화운동이 수차례 연합될 경우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에 의해 연합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Baccus, Baldwin, & Packer, 2004).

한편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과 외상사진이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이 빠르지 않았고,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사진이 연합된 조건보다 23ms 더 느리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남출신 대학생들에게서 5·18이 민주사진 및 외상사진과 유사한 강도로 연합되어 있으며, 광주출신 대학생들과 달리 정보처리에 있어 부정적인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광주출신 대학생들보다 많이 떠올렸지만, 외상과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게 보고하였다(배재창, 2016). 그런데 본 실험에서도 전남출신 대학생들이 상반된 내용의 정보들을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18에 대한 민주사진 및 외상사진의 암묵적 표상화 양상에서 광주출신과 전남출신 간 차별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은 5·18과 외상사진이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이 더 빨랐다. 그러나 발생지가 아닌 전남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은 민주사진이 연합된 조건에서 근소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여기서 민주사진은 광주시민들이 주체로서 함께 투쟁하며 서로 돕는 모습을 담고 있는 반면, 외상사진에서는 신군부가 폭력의 주체이며 광주시민들은 핍박당하는 객체로 제시되고 있다. 즉, 5·18이라는 사건에 대해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당사자적 입장(행위자이면서 피해자)에 놓이게 되지만,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관찰자적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Jones & Nisbett, 1972). 광주시민들은 민주사진에서는 투사이지만 외상사진에서는 피해자로 그려진다(서지원, 2014). 그런데 외상적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으며(오수성 등, 2006), 피해자지만 오랫동안 폭도로 낙인찍히면서, 자신들의 투사적 모습보다는 자신들에게 외상을 입히고 누명을 씌운 가해자가 중요한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찰자이면서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남지역 사람들은 광주시민들이 받았던 국가폭력보다 5·18의 행위자인 광주시민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 같다.

배재창(2016)은 5·18 당시 광주의 고립으로 인해 광주시민들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전남도민들은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사전 조사에서 5·18 사진을 식별하는 데 있어 출신지역별(광주, 전남, 기타지역)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외상사진의 경우 전남출신 대학생들의 식별률이 광주출신 대학생들에 비해 낮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사진에서는 전남출신 대학생들의 식별률이 현저히 낮았다. 그리고 전남출신 대학생들

은 기타지역 대학생들에 비해서도 민주사진과 외상사진의 식별률이 더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남지역이 광주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기타지역과 마찬가지로 5·18과 관련하여 특별히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모든 지역의 대학생들이 외상사진은 잘 알고 있었지만 민주사진은 잘 모르고 있었다. 민주사진을 잘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해당 사진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평소 5·18 사진 중 외상사진에 많이 노출된 반면, 민주사진에는 적게 노출되었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다. 민주사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민주사진 조건'에서 반응이 느리지 않았는데, 민주사진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질 경우 민주사진에 대한 반응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명시적 평가로 이루어진 상징어 조사에서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에 대해 중립에 가깝긴 하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암묵적 차원에서는 5·18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5·18+긍정반응'과 '5·18+부정반응'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5·18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5·18+긍정반응'에서 나타난 저항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보다 5·18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5·18이 환기되는 상황에서 외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활성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에 5·18과 관련하여 외상적 정보의 활성화를 억제시키고 민주적 정보의 활성화를 강화시킨다면, '5·18+부정반응'이 더 느려지고 '5·18+긍정반응'은 더 빨라져서 결과적으

로 암묵적 태도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상징어 조사에서 5·18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암묵적 차원에서도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5·18+긍정조건'에서 빠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5·18과 긍정적인 내용이 강하게 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전남출신 대학생들이 5·18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18에 대해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5·18과 연합된 새로운 자극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Gewirtz & Davis, 2000). 그러나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암울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5·18에 대한 암묵적 표상과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사건 당시 광주시민들은 외상을 경험하였는데, 30년이 지난 현재 광주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은 외상을 공유하면서 5·18과 강하게 연합시키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참담했던 경험과 연합된 5·18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과 외상의 연합이 강하지 않았고,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5·18은 아직까지도 광주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전남지역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시대적 배경 및 지역규모가 유사했던 부마

항쟁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부마항쟁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광주출신 대학생처럼 사건과 외상적 정보를 강하게 연합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마항쟁을 환기시킬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암묵적 평가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민주사진들은 외상사진들에 비해 친숙도가 낮았는데, 자극의 친숙도가 낮을 경우 변별과제에서 반응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조건의 사진들이 나와 있는 자극 분류표를 활용하여 민주사진의 친숙도를 높였지만, 외상사진의 친숙도 역시 상승했기에 친숙도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비교적 친숙도가 높은 민주사진들로 자극의 수를 줄이고, 그 자극들과 친숙도가 비슷한 수준의 외상사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목적과 실험시간을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는 5·18에 대한 암묵적 평가만 측정된 결과, 명시적 평가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사전조사의 5·18 상징어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상에 대한 평가가 목적이라면 명시적 평가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이제는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연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출신 대학생들이 5·18에 대해 외상적 내용이 떠오르는 것을 억제하고,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5·18과 긍정적인 내용의 강한 연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외상 대신 민주화 관련 내용들이 활성화되도록 5·18과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들을 연합하여 주기적으로 제시하거나(Baccus et al., 2004), 정신적 심상화(mental imagery) 기법을 사용하여 외상에 가까

운 5·18의 심상을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Blair 등(2001)은 실제로 여성이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한 여성들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여 여성을 약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아울러 외상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에게 5·18관련 외상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이될 수 있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용철, 유성은 (2013).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649-665.
- 권해수, 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95-518.
- 김용철 (2015).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민주주의와 인권, 15(3), 275-320.
- 나간채 (2007). 5월운동에 있어서 의미틀의 형성과 발전. 지역사회연구, 15(3), 3-21.
- 나은영 (1998). 강한 태도의 편파적 처리과정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이중처리과정 이론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37-70.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민지원, 주혜선, 안현의 (2016). 재난 자원봉사 인력의 소진 양상에 따른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세상에 대한 신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63-385.
- 배재창 (2016).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지역 대학생에게 미치는 암묵적 영향. 민주주의와 인권, 16(4), 75-102.
- 배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한 지역정체감 연구: 광주의 사례.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1-49.
- 배재창, 한규석 (2015).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가 대인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암묵적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39-62.
- 서지원 (2016). 투사/피해자 이중 정체성과 인권운동에의 기여: 인도네시아 민주화 이행기 활동가 납치 사건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14(1), 191-232.
- 안종철 (2001). 광주민주화운동과 무장투쟁. 한국동북아논총, 20, 275-299.
- 양야기 (2014). 5,18민주화 운동과 광주지역에서의 간호활동 경험. 간호행정학회지, 20(1), 82-94.
- 오수성 (1990). 광주5월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광주5월 민중항쟁, pp. 187-209.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5·18 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59-75.
- 이숙의, 진두현 (2017). 코퍼스를 이용한 '호남'과 '영남' 지역신문에서의 '5.18'에 대한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어학, 76, 83-112.
- 이재의 (2005). 1980년 광주: 10일 간의 민주공

- 동체. 기억과 전망, 10, 20-35.
- 이흥표, 최윤경, 이재호, 이흥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정근식 (2007).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저항의 상징 다시 읽기: 시민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 143-183.
- 정홍주, 오수성, 이영호, 박중규, 신현균, 김석웅, 정명인 (2015). 한국전쟁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민주주의와 인권*, 15(3), 385-414.
- 조진태 (2005). 광주는 아프다. *기억과 전망*, 10, 36-51.
- Baccus, J. R., Baldwin, M. W., & Packer, D. J. (2004). Increasing implicit self-esteem through classical conditioning. *Psychological Science*, 15(7), 498-502.
- Bargh, J. A. (1989). Conditional automaticity: Varieties of automatic influence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The limits of awareness, intention and control* (pp. 3-51). New York: Guilford Press.
- Blair, I. V., Ma, J. E., & Lenton, A. P. (2001). Imagining stereotypes away: the moderation of implicit stereotypes through mental image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828-841.
- Elwood, L. S., Mott, J., Lohr, J. M., & Galovski, T. E. (2011). Secondary trauma symptoms in clinicians: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ruct, specificity, and implications for trauma-focuse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1), 25-36.
- Fazio, R. H. (1990). Multiple processe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3, pp. 75-109). New York: Academic Press.
- Fazio, R. H., & Williams, C. J. (1986). Attitude accessibility as a moderator of the attitude-perception and attitude-behavior relations: An investigation of the 1984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505-514.
- Gewirtz, J. C., & Davis, M. (2000). Using Pavlovian higher-order conditioning paradigms to investigate the neural substrates of emotional learning and memory. *Learning & Memory*, 7(5), 257-266.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1), 4-27.
-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1022-1038.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291-306.

- Psychology*, 85(2), 197-216.
-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 79-94).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arpinski, A., & Steinman, R. B. (2006).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Measure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6-32.
- Kiefer, A. K., & Sekaquaptewa, D. (2007). Implicit stereotypes and women's math performance: How implicit gender-math stereotypes influence women's susceptibility to stereotype threa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5), 825-832.
- Lane, K. A., Goh, J. X., & Driver-Linn, E. (2012). Implicit science stereotype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academic participation. *Sex Roles*, 66(3), 220-234.
- McNally, R. J., Hornig, C. D., Otto, M. W., & Pollack, M. H. (1997). Selective encoding of threat in panic disorder: Application of a dual priming paradig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6), 543-549.
- Nock, M. K., Park, J. M., Finn, C. T., Deliberto, T. L., Dour, H. J., & Banaji, M. R. (2010). Measuring the suicidal mind: implicit cognition predicts suicid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4), 511-517.
- Nosek, B. A., Smyth, F. L., Hansen, J. J., Devos, T., Lindner, N. M., Ranganath, K. A., Smith, C. T., Olson, K. R., Chugh, D.,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7). Pervasiveness and correlates of implicit attitudes and stereotyp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1), 36-88.

논문 투고일 : 2017. 09. 15

1 차 심사일 : 2017. 09. 17

게재 확정일 : 2017. 11. 16

The Implicit Representation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Jaechang B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d whether university students of Gwangju and Jeollanam-do recall negative information like violence and death faster than positive information like democratic community about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in implicit dimension. University students of Gwangju responded faster when the May 18 combined with the pictures of negative content. However, university students of Jeollanam-do responded marginally faster when the May 18 combined with the pictures of positive content. In addition, the students performed implicit evaluation test towards the May 18. The students of Gwangju showed a slightly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May 18, while the students of Jeollanam-do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May 18. This study acquires significance because it confirmed that university students of Gwangju have an implicit representation similar to trauma and a terrible feeling about the May 18.

Key words : Gwangju democratic movement, trauma, democratic community, implicit representation, implicit evaluation

부록 1. 사전조사에서 사용된 5·18 민주사진

번호	사 진	선정	번호	사 진	선정
1번		O	2번		O
3번		X	4번		O
5번		O	6번		O
7번		O	8번		O
9번		O	10번		X
11번		X	12번		O
13번		X	14번		X
15번		O			

부록 2. 사전조사에서 사용된 5·18 외상사진

번호	사 진	선정	번호	사 진	선정
1번		O	2번		O
3번		O	4번		O
5번		X	6번		X
7번		O	8번		X
9번		O	10번		X
11번		O	12번		O
13번		O	14번		X
15번		O			

부록 3. 5·18 사진자극에 대한 긍정성 평가결과

사 진	광주지역 긍정성		전남지역 긍정성		기타지역 긍정성		전체 긍정성		순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민주 1	5.74	1.18	4.70	1.06	5.00	1.41	5.38	1.23	3
민주 2	4.78	1.48	4.89	1.69	3.50	1.29	4.67	1.53	8
민주 3	3.23	1.57	2.70	1.77	2.75	1.26	3.03	1.58	14
민주 4	4.27	1.52	4.20	1.75	4.25	0.96	4.25	1.50	10
민주 5	5.43	1.44	4.50	1.51	4.75	1.71	5.11	1.51	4
민주 6	5.65	1.30	5.10	1.60	5.50	1.29	5.49	1.37	1
민주 7	5.13	1.06	5.00	1.70	4.50	1.00	5.03	1.24	5
민주 8	5.65	0.83	5.00	1.63	5.50	1.73	5.46	1.19	2
민주 9	5.13	1.22	4.30	1.42	5.75	1.26	4.97	1.32	6
민주10	4.17	1.19	4.10	1.20	3.75	1.71	4.11	1.22	11
민주11	3.83	1.34	3.90	1.60	4.50	1.73	3.92	1.42	13
민주12	4.13	1.29	3.90	1.20	4.00	1.41	4.05	1.25	12
민주13	4.74	1.36	4.20	1.23	5.25	0.96	4.65	1.30	9
민주14	2.83	1.75	3.40	1.71	2.75	2.06	2.97	1.74	15
민주15	5.00	1.57	4.60	1.65	5.00	2.16	4.89	1.61	7
민주평균	4.65	1.58	4.30	1.59	4.45	1.61	4.53	1.59	
외상 1	1.91	1.06	1.80	0.79	2.00	0.82	1.89	0.95	12
외상 2	1.57	0.79	1.90	1.29	2.25	0.50	1.73	0.93	9
외상 3	1.26	0.69	1.40	1.26	1.00	0.00	1.27	0.84	3
외상 4	1.04	0.21	1.20	0.42	1.50	1.00	1.14	0.42	1
외상 5	1.70	0.76	1.70	0.67	3.00	1.41	1.84	0.90	11
외상 6	2.95	1.68	2.90	1.10	1.50	0.58	2.78	1.49	14
외상 7	1.39	0.72	1.60	0.97	1.75	0.96	1.49	0.80	6
외상 8	2.04	1.55	1.60	0.97	1.00	0.00	1.81	1.35	10
외상 9	1.17	0.39	1.30	0.48	1.50	0.58	1.24	0.43	2
외상10	1.96	0.71	1.70	0.67	2.25	0.50	1.92	0.68	13
외상11	1.30	1.06	1.20	0.63	2.00	1.41	1.35	1.01	5
외상12	1.57	0.73	1.80	0.79	1.75	0.96	1.65	0.75	7
외상13	1.30	0.56	1.50	0.71	1.00	0.00	1.32	0.58	4
외상14	2.57	1.20	3.60	0.84	2.25	1.89	2.81	1.27	15
외상15	1.74	0.75	1.70	1.06	1.00	0.00	1.65	0.82	7
외상평균	1.69	1.05	1.79	1.04	1.72	0.98	1.72	1.04	

주. 광주-23명, 전남-10명, 기타지역-4명. 순위는 민주사진 및 외상사진 선정기준에 의한 결과임.

부록 4. 5·18 사진자극에 대한 폭력성 평가결과

사 진	광주지역 폭력성		전남지역 폭력성		기타지역 폭력성		전체 폭력성		순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민주 1	1.39	0.58	1.90	0.99	1.25	0.50	1.51	0.73	1
민주 2	2.30	1.40	2.22	1.48	3.00	1.41	2.36	1.40	7
민주 3	4.96	1.58	5.00	1.89	5.25	0.50	5.00	1.56	14
민주 4	4.83	1.30	5.10	0.99	4.75	0.50	4.89	1.15	13
민주 5	1.78	1.17	2.90	1.66	2.25	0.96	2.14	1.36	3
민주 6	1.43	1.08	2.00	0.94	1.75	0.96	1.62	1.04	2
민주 7	2.17	1.11	2.10	1.37	2.75	0.50	2.22	1.13	4
민주 8	2.00	1.17	3.20	1.40	1.75	0.96	2.30	1.31	5
민주 9	2.09	1.38	2.56	1.67	3.00	1.83	2.31	1.49	6
민주10	3.26	1.54	3.10	1.37	4.50	2.08	3.35	1.57	9
민주11	4.57	1.38	5.30	1.42	5.25	0.50	4.84	1.34	12
민주12	4.78	1.31	4.70	1.34	3.75	0.96	4.65	1.30	11
민주13	3.30	1.58	4.00	1.70	2.75	0.96	3.43	1.57	10
민주14	5.04	1.49	5.00	1.73	6.00	0.82	5.14	1.50	15
민주15	2.39	1.27	2.80	1.93	2.75	1.71	2.54	1.48	8
민주평균	3.09	1.86	3.46	1.87	3.38	1.73	3.22	1.85	
외상 1	6.26	0.69	6.30	1.06	6.00	0.82	6.24	0.80	8
외상 2	6.30	0.82	6.20	1.03	5.50	0.58	6.19	0.88	9
외상 3	6.91	0.29	6.60	0.70	7.00	0.00	6.84	0.44	4
외상 4	7.00	0.00	6.70	0.67	6.75	0.50	6.89	0.39	2
외상 5	6.09	1.00	6.10	0.88	4.75	1.26	5.95	1.05	10
외상 6	3.13	2.30	3.10	2.13	4.00	1.41	3.22	2.15	15
외상 7	6.65	0.78	6.60	0.70	5.75	0.96	6.54	0.80	6
외상 8	4.57	2.37	4.00	2.31	6.00	0.00	4.57	2.26	12
외상 9	6.96	0.21	6.90	0.32	6.50	0.58	6.89	0.31	1
외상10	6.04	1.07	6.10	0.88	4.75	1.26	5.92	1.09	11
외상11	6.96	0.21	6.70	0.48	6.75	0.50	6.86	0.35	3
외상12	6.22	1.17	6.30	0.82	6.25	0.96	6.24	1.04	7
외상13	6.74	0.54	6.40	0.70	7.00	0.00	6.68	0.58	5
외상14	4.48	1.53	3.30	1.95	6.00	0.00	4.32	1.73	13
외상15	4.78	1.91	3.10	2.02	4.25	3.20	4.27	2.16	14
외상평균	5.94	1.65	5.63	1.85	5.82	1.37	5.84	1.68	

주. 광주·23명, 전남·10명, 기타지역·4명. 순위는 민주사진 및 외상사진 선정기준에 의한 결과임.